

인도네시아의 구라보 합판회사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강화

인도네시아에 “구라보”가 42.9%, 현지 “알고판테스사(社)”가 40% 출자하고 있는 합판(合辦)회사 “구라보·마농갈·텍스타일(약칭 : 구마텍스)”은 당초에는 폴리에스테르/면 혼방사만을 생산하였고, 생산전량을 알고판테스사가 사용하였는데, 알고판테스사가 92년부터 폴리에스테르/면 혼방사를 다른 공장에서 자체 생산하기 시작함에 따라, 비로소 다른 품종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공장은 3만추 규모로, 연조는 8 line, 30대의 연조기로 구성되어 다른 품종을 생산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또한 91년에는 2만추 규모로 연조 3 line, 연조기 10대를 설치한 제 2공장이 신설되어 다품종 생산체제가 강화됨으로써, 과거 3만추 규모, 월 10품종 생산체제에서 지금은 5만추 규모, 월 평균 46품종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강화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인건비, 전력비 등이 상승하여 볼륨·존(volume zone) 보급품(普及品)의 채산성이 점차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가 효력을 보이기 시작하여 1999년부터 수익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으며, 2000년 12월에는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품번(品番, 상품번호)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의 경기가 좋지 않아 수입은 10% 줄었고, 영업은 20%의 감익(減益)을 보게 되어, 품번 상품의 생산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구마텍스가 생산하는 실의 판매처별 구성은 현재 ①구라보 ②구라보외의 일본기업 ③일본이외 국가 ④인도네시아 국내 등으로 되어 있으며, 판매량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